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깐깐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텔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

갑자기 **반말 투로** **욱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짚은 소리라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 **말재간**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라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확 질리고 말았다.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윤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윤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윤 선생과 같은 분에게 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느냐.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덴 귀가 팍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율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 **내 좀 더 똑똑히 말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침시다아— 채권 삽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아—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오다아—”**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제 좀 알아들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2.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억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옥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옥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위 작품의 주인공은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글쓰기가 의뢰인을 아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주인공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사람보다는 타인에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글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글쓰기에 느끼는 감정과 의뢰인들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운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운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상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썩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깐깐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든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는 주인공인 ‘지옥’이 등장합니다. ‘지옥’은 ‘선생’이란 인물의 신념을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 있습니다. ‘선생’의 인물상이 ‘지옥’이 생각하던 감동적인 인물상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의 생활 방식에는 가식이 넘쳐나고, 인생에서 후회나 의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없는 삶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를 갖는 사람보다는, 타인에 삶에 기여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생’의 삶의 자세는 ‘지옥’이 아주 싫어하는 자세인 겁니다.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델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욱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말재간을 한번 부러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별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러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콧 질리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피문오 씨’는 ‘지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지옥’은 ‘피문오 씨’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난 ‘피문오 씨’가 ‘지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피문오 씨’는 ‘지옥’에게 당신의 알량한 양심 때문에 일을 안하는 것이냐며, 그 양심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며 화를 내고 있어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지옥’에게 분노한 모습입니다. ‘지옥’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지옥’의 직업은 자서전 대필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고, 자기만의 글쓰기 신념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보자면 ‘지옥’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신념으로 ‘피문오 씨’의 글쓰기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고, ‘피문오 씨’는 그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피문오 씨’의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부탁을 거절한 것이죠.

불현듯 최상운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운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운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느냐.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덴 귀가 짝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유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채권 샅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샅니다아—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아—”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제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지옥’은 ‘선생’과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 때도 자신의 주관을 굽히지 않았는데, ‘피문오 씨’에게도 주관을 굽힐 수 없다며 이 수모를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런 ‘지옥’의 모습을 보고 계속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피문오 씨’는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 채권,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과 자서전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지옥’의 자서전의 신념에 대해 폄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것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예요.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장면이 교차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옥’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작품 밖 서술자가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선생’과 ‘피문오 씨’와 겪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어요.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 있습니다. 이야기 내부에 있지 않아요.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인물 간의 대화는 등장합니다. ‘지옥’과 ‘피문오 씨’의 갈등 상황이 제시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비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 서술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작품 밖 서술자가 계속 작품을 서술하고 있어요.

2.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 말재간을 한번 부러 보고 싶어서 이래?
-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 ㉣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 ㉤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① ㉠ :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지옥이 피문오의 글쓰기 부탁을 거절하자 알량한 양심 때문이냐며 ㉠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지옥을 무시하고 지옥에게 분노한 피문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② ㉡ :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피문오는 지옥에게 내가 바보 멍청이로 보이냐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옥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③ ㉔ :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피문오가 화를 낸 것을 듣고 지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④ ㉕ :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피문오는 지옥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더 해보라고 하죠. 지옥에게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⑤ ㉖ :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지옥이 계속 침묵하자 피문오는 좀 더 제대로 말을 해주겠다며 고장 난 시계, 라디오 등과 자서전을 같이 말하면서 지옥의 자서전에 대한 신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3.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보 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선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최상윤 선생입니다. 이 선생은 지옥에게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인물이에요. 지옥은 선생이 감동적인 인물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요.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지옥은 '회의'없는 자서전은 거인의 동상에 불과하다고 하고, 최상윤 선생의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합니다. '회의'하지 않고,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하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회의'하고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삶은 지옥이 말하는 감동적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보기>에서 지옥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는 타인에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옥이 말하는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은 인물상이에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욕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피문오는 지옥에게 '반말 투로' '욕박'지르고 있습니다. 지옥이 피문오의 자서전을 써달라는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지옥은 피문오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피문오는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피문오는 지옥의 '양심'을 '알량'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가진 인물상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피문오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㉔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 채권 샅니다아 —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샅니다아 —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아 —"

①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 피문오가 지옥의 자서전의 신념을 시계, 라디오 등과 같이 말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폄하하고 지옥을 우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옥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죠.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옥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피문오가 자신이 무식하지 않은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다.

→ 지옥의 자서전을 무시하고 있지 자서전 쓰기를 타인에게 권하고 있지 않아요.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피문오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